

#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본격'

남원시·대한체육회·전북체육회 등, 건립 협약 체결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공약... 최근 타당성 조사 완료  
내년 12월까지 심의·용역 마무리... 2028년 개관 목표

제20대 대선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조성' 사업이 최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체육회는 지난 24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남원시와 대한체육회 상호간의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 8월 마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선정된 입지를 확정하고자 이루어졌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문화·체육·관광 분야)으로 선정, 중부권 이남 지역 전체를 아울러 유소년과 청소년 중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국비(총 490억원)가 투입된다.

그동안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대응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 사업 타당성 및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건의해 정부예산 2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왔다.

용역 결과 4개 후보지 중 입지여건, 경제성, 부합성 평가 결과 최종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타당성 분석 결과 2028년부터 2057년 연간 이용수요로 9만9,980명, 운영수지는 총 125억4,300만원의 수익이 추정됐다.

남원 종합스포츠 타운에 들어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는, 연면적 1만1,000㎡(운동시설 4,760㎡ 기숙사 6,240㎡) 규모로, 훈련장, 기숙사,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는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는 부지 제공 및 시설사용 지원 등을 맡게 되며, 대한체육회는 설계 및 건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전북특별자치도는 건립부지 관련 행정절차 및 주변 스포츠 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남원시청에서 박희승 국회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한수 남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수 남원시의회 부의장,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은 1단계로 2025년 12월까지 건축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해 2028년 5월 개관 목표로 추진되며, 2단계로 2027년까지 확장 계획 수립,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완공에 매진할 예정으로, 완

공 시 유소년 체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중부권 이남 남부권 거점 유소년과 청소년 특화 첨단 훈련시설이 될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가 남원시에 조성되는 만큼, 앞

으로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다양한 체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문체부장관 "축구협회 감사 최종발표 늦어질 듯"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월 말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최종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하기로 했던 축구협회 감사 최종 발표가 늦춰질 듯하다"며 "정몽규 회장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 등이 일자 지난 7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지난 2일에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해 협회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등 하자가 있었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접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10월 말로 예정했던 축구협회 감사 결과 최종 발표 시점은 정 회장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연기하기로 했다.

정 회장의 4선 도전,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 회장의 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자문 계약 등 살펴봐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것도 최종 발표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체부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주체인 문체부와 대상인 축구협회가 깊이 연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 WKBL, 새 시즌 앞두고 앵·홈페이지 리뉴얼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오는 27일 개막하는 하나은행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를 맞이해 WKBL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앱을 통한 생중계 시청 시 표출되는 실시간 선수별, 팀별 기록을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고 올 시즌부터는 승리 팀 맞이기 기능을 추가해 팬들이 더욱 재밌고 박진감 넘치게 여자프로농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리뉴얼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중계, 선수별 하이라이트, 티켓 예매, 모바일 티켓 등 다양한 메뉴의 레이아웃을 더 편리하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위치 기능을 도입해 앱 접근성을 강화했다. 공식 홈페이지도 리뉴얼했다.

메인 화면은 최신 웹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반영했다. 오늘의 경기 일정, 영상 콘텐츠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 기록을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부문별 팀 기록 조회를 새롭게 추가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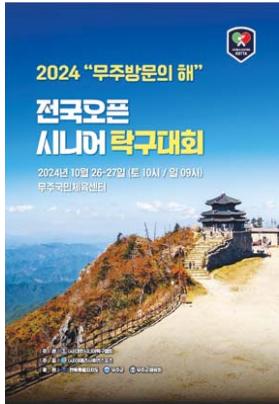
## '시니어 탁구 동호인들 모여라'

전국 오픈 대회, 26-27일 무주국민체육센터서

전국 오픈 시니어 탁구대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전국 50세 이상 탁구 동호인 1천5백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시니어 탁구인들의 무주방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탁구 저변 인구 확대와 건강 증진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사)대한시니어탁구협회(회장 이예리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용)와 무주군(군수 황인홍),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후원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국 오픈 시니어 탁구대회 개최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무주대회가 선수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친교를 위한 자리, 경기를 통해 실력을 키우고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은 탁구 친화 도시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탁구의 매력을 알리고 저변을 키워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은 그간 탁구 청소년 대표팀 전지훈련과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호프스(U12) 국가대표 산발전, 2024년 탁구 체육지도자 실기·기술 자격검정을 유치·개최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2026년 도민체전, 진안에서 열린다

도체육회 이사회사 최종 선정  
진안 첫 개최로 군민 위상 높여

진안군이 2026년도 열리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5월 진안군체육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유치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올해까지 61회에 걸쳐 도민체전이 치러지는 동안 진안군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도민체전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안군과 장수군, 양측 지자체장의 의지와 간담회를 통해 도민체전 유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진안군과 진안군체육회가 함께 협력체계를 갖추어 간담회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쳤으며, 일부 종목의 경기장 사용에 대한 장수군 및 장수군체육회와의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첫 도민체전 개최라는 쾌거를 이뤘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180만 도민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만큼 체육시



진안군이 2026년도 열리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사진은 최근 순창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진안군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설 개보수를 비롯해 도민체전 TF팀 구성, 종합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각 시·군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한 사전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인들과 체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춘선 군수는 "진안군에서도 도민

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만큼 우리 군민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진안군의 위상과 진안군민들의 자긍심 또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기탁서 작성	기부(현금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	--------------	-------------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자 인증 (거주지·핸드 확인)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배송내역 조회)
-----------------------	-------------------------	----------------------	----------------------------

**기부자 혜택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